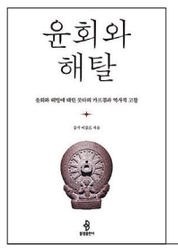
윤회는 불교인가, 아닌가?



윤회와해탈
이중표 지음
불광출판사 / 1만7천원

윤회와 해탈에 대한 붓다의 가르침
"윤회는 신앙의 문제…논쟁할 사안 아니다"
진정한 해탈에 이르는 길 제시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윤회는 있는가, 없는가?" "윤회는 불교인가, 아닌가?"

윤회가 '없다'고 하기에는 경전에 전하는 업(業)과 윤회에 관한 가르침이 생생하고, '있다'고 하기엔 무아(無我) 사상과의 충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다. 무아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개념인데, 윤회가 있다면 무엇이 주체가 되어 윤회하는 것이냐는 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간 불교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여겨졌던 윤회를 둘러싼 논란에 이중표 전남대 명예교수〈사진〉가 답했다. 그는 최근 출간한 〈윤회와 해탈〉에서 "윤회는 '신(神)'과 '천국'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신앙의 문제"라고 정의하고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믿지 않으면 될 일이지 논쟁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의 답처럼 이 책은 '윤회는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대신 '불교는 윤회를 인정하는가, 아닌가'를 중심에 두고 이야기한다.

"많은 사람들이 윤회설을 불교의 핵심 사상으로 알고 있고, 윤회설을 석가모니 붓다가 직접 가르쳤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윤회설은 붓다의 열반 후 오랜 시간을 거쳐서 아비달마불교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윤회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윤회설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저자는 책에서 윤회설이 생겨난 인도의 사상적 배경부터 윤회설이 불교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과정을 살피고, 경전을 바탕으로 윤회에 대한 붓다의 가르침과 해탈에 이르는 올바른 방법을 찾는다.

1장 '인도의 윤회사상'에서 저자는 〈상윳따니까야〉 등 초기경전을 예로 들면 "붓다가 윤회를 이야기한 것은 윤회설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윤회라는 생각 자체가 연기법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사견(邪見)이므로, 연기법을 정견(正見)으로 삼아 사견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붓다가 직접 말하지 않았음에도 윤회설은 어떻게 불교의 핵심 사상이 되었을까? 저자는 "붓다가 깨달은 12연기를 삼세양중인과설(三世兩重因果說)로 해석한 아비달마불교에 기인한다"며 "아비달마불교는 윤회와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불교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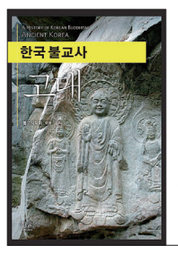
'붓다는 윤회한다고 가르치지 않았다'면 죽으면 그만이라는 것일까? 이에 대해 저자는 "생사는 중생들이 자아라는 망상을 고집할 때 나타나는 착각"이라며 "따라서 아상(我相)을 버리면 생사 윤회는 사라질 뿐, 죽어서 윤회할 자아도 없고 죽으면 그만인 자아도 없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여러 인연에 의해 살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불교의 연기설이며 무아설"이라고 설명한다.

'무아'의 개념도 짚었다. 붓다가 가르친 무아는 삶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삶 속에 존재한다고 믿는 허망한 생각, 즉 망상을 버리라는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또 '무아가 아니면 유아'라는 모순된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 중도(中道)이며, 중도에서 연기하는 삶의 실상을 보아야 무아의 참뜻을 알 수 있다고 당부한다.

책에서는 '붓다가 말한 윤회'만 나열하지는 않는다. 윤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해탈'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진정한 해탈이란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해탈에 이르는 수행법으로 '9차제정(九次第定)'을 제시한다. 9차제정은 중생들의 세간인 욕계, 색계, 무색계의 실상을 깨달아 세간에 대한 욕탐(欲貪)을 버리고 단계적으로 해탈에 이르는 수행법이다. 저자는 "불교의 해탈과 열반은 9차제정을 통해 삼행(三行)을 소멸해 8해탈을 성취함으로써 이뤄진다"고 강조한다.

이중표 교수는 호남불교문화연구소장, 범한철학회장, 불교학연구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불교 신행 단체인 '붓다나라'를 설립해 포교와 교육에 힘쓰고 있다. 저서로는 〈인간 붓다〉 〈정선 디가 니까야〉 〈담마빠다〉 〈근본불교〉 〈현대와 불교사상〉 등이 있다.

학계 역량 결집한 한국 불교사 개설서



한국불교사:고대
불교사학회 엮음
한울아카데미 / 3만9천원

3부작 완간…불교사학회 첫 성과
44명 필진–62개 주제 담아낸 通史

불교사학회(회장 조명제)가 한국 불교사 통사(通史) 출간을 발원하고 추진해 온 '한국 불교사 개설서' 3부작이 마무리됐다.

불교사학회는 2023년 11월 〈한국 불교사: 고려〉, 지난해 6월 〈한국 불교사: 조선·근대〉에 이어 최근 〈한국 불교사: 고대〉를 출간함으로써 개설서 3권을 완간했다. 조명제 불교사학회장은 "44명의 필진이 모여 전체 62개 주제에 이르는 방대한 영역을 아우르며 한국불교 통사를 제시한 것은 학계에서 처음으로 이룬 성과"라 자평했다.

'한국 불교사 개설서'는 동아시아 불교사의 흐름을 읽어내려는 학제적 경향을 반영해 '시기별 불교사의 흐름과 불교계의 동향', '사상과 문화', '사회와 불교'라는 세 가지 주제로 큰 틀을 잡고, 나머지 글을 보론으로 묶는 체제를 택했다. 이로써 인물의 사상 체계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불교학'과는 다른 '불교사학'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또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논문 형식 대신 주제별 서술 방식을 택했다.

〈한국 불교사: 고대〉의 1부 '고대 불교사의 동향'에서는 그간 지리적·사료적 한계로 연구가 어려웠던 고구려 불교사의 흐름과 문화, 백제의 불교 수용과 한성·웅진·사비 시기의 불교와 사원, 신라의 불교 전래와 중고기의 시작, 불교와 토착 신앙과의 관계, 신라 중대 전제 왕권과 불교의 관계, 신라 하대 역사적 전환기의 사상 등을 다뤘다. 2부 '고대의 불교 사상과 신앙'에서는 불교와 대립하던 토착종교가 불교에 수용되는 과정, 원효와 의상, 동아시아 유식사상의 형성과 한국 유식사상의 전개, 정토신앙과 미륵신앙의 확산과 대중화 등을 살핀다.

3부 '고대 문화의 불교'에서는 고대 불상을 비롯해 석조미술, 사원 등을 사진과 배치도 등을 곁들여 설명한다. 보론에서는 고대 승관제도와 승정기구의 양상과 특징, 사리신앙의 기원과 사리장엄 사례, 문두루법으로 알려진 밀교의 시기별 양상과 학승의 활동, 발해 불교와 승려들의 활동을 조명한다.

여수령 기자

美 학자가 본 한국 불교미술



한국불교와 그 미술
존 카터 코벨 지음
김유경 편역
눈빛 / 3만3천원

〈한국불교와 그 미술〉은 미국 출신 미술사가 존 카터 코벨(Jon Carter Covell, 1910~1996)의 논문과 칼럼 115편을 모은 '코벨의 한국문화·미술사' 시리즈 두 번째 책이다. 한국불교미술사를 편년체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고려불화 △대장경과 인쇄술 △한국불교와 정치사 △한국불교의 선과 교 △불교와 무속 △관세음보살 △미륵신앙 등 저자가 다양한 주제로 쓴 글을 가려 모았다.

코벨은 "오늘날 한국의 국보 가운데 8할이 직접적인 불교 관련 미술품이거나 불교에 고취된 것에서 생겨난 것들이다. 그 엄청난 비중만 보아도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얼마나 깊이 있게 불교가 한국문화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짐작케 한다"고 말한다.

책의 가장 큰 주제인 '고려불화'는 미술사학자로서 코벨이 자신있게 분석한 분야다. 그는 1979년 일본에서 열린 '고려불화 특별전'을 통해 90여 점의 불화를 접한 것을 계기로, 모두 16편의 논문과 칼럼을 썼다.

고려불화를 '한국 회화의 정점'이라고 평가한 그는 "고려불화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화 자체가 중세시대 불교의 헌신을 말해주는 상징이자 법력 그 자체이며, 아름다움을 그에 부수되어 생겨난 것으로 알고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코벨의 글을 우리말로 번역해 온 김유경 편역자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불교까지, 그 역사에서 만들어진 예술품에 대한 코벨의 분석은 깊은 철학과 사회사적인 통찰이 예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며 "특히 설악산 신흥사의 역사적 기원을 추적한 글이나 고려 홍법국사 부도탑 분석은 그의 불교미술 연구의 깊이를 잘 드러내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책을 엮으며 직지사, 용주사, 송광사, 신흥사 등을 직접 방문해 글에 언급된 내용을 재확인하고 사진을 모았다. 코벨이 글을 쓴 시점이 40여 년 전이기에 오늘날 변화된 환경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한편, '코벨의 한국문화·미술사' 시리즈는 앞으로 도자기와 다도, 민화, 무속, 회화 등 6~7편이 더 출간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봉행

서각사 (참선 염불선원)
복장 점안 및 개원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만물이 소생하고 생동하는 꽃피는 계절을 맞이하여 불자님들께 도손 모아 합장 인사올립니다.
산승은 (사)한국불교약사회 총재 (사)한국효문화실천회
회장 대연각사(아미선원) 회주 진원 불일 승려입니다.
산승은 시절 인연따라 충남 부여군 규암면 수북정 앞 백마강이 유유히 흐르는 도심속에
새롭게 탄생하는 부처님의 전법 전당이 되어질 서각사(참선 염불선원)을
복장 점안 및 개원법회 알리고자 초청장을 전해 드립니다.
산승은 3년간의 불사 끝에 여러 대덕 큰스님들을 증명 법사로 모시고
아미타불 약사여래불 미륵존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약사보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포대화상 복장 점안 및 개원식 법회를 봉행 하오니 불자님들께서는
많은 동참하시어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으시고 만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일시: 불기2569년 양력 4월25일 복장 ♠

❖ 본 행사 불기2569년 양력 4월26일 토요일 오전 ❖
■ 1부: 8시~9시 식전행사 (축하공연)
■ 2부: 9시~11시 점인 및 불공 천도법회
■ 3부: 11시~12시 증명법사 대한불교 조계종 암도 큰스님 법문

충남 부여군 규암면 수북로65 하성빌딩(3층) 서각사(참선 염불선원)
☎문의 : 041)835-3934, 010-7174-1711 서각사(참선 염불선) 선원장 진원 불일 합장
자비후원 : 농협 463143-51-009534 대연각사(아미선원)

♠주최: (사)한국불교약사회 총재 (사)한국효문화실천회 회장 ♠주관: 대연각사(아미선원) ♠후원: BTN 불교방송 특집방송 유튜브 방송 불일TV선명상 호국불교방송 세계일화